

제공일자	2009. 7. 22.(수)	담당자	변혜원 연구위원	
홍보담당	김세환 수석(3775-9051)	연락처	3775-9027	총 2 매

제목 : 손해보험회사의 보종별 원수보험료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 분석

다각화 전략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및 경영성과 변동성 축소 필요

보험연구원(원장 나동민)의 변혜원 연구위원과 이경희 연구위원은 『손해보험회사의 보종별 원수보험료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 분석』이라는 테마진단(보험동향 2009년 여름호)을 작성하였다.

동 보고서에서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률 변화와 보험종목 측면에서의 다각화 수준을 파악한 후, 보험종목 별 다각화 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. 손해보험회사의 보험 종목은 일반손해(해상·화재·특종), 자동차 및 장기손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담보 위험 및 투자 측면에서 부문 간 상호 보완 기능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다각화를 통해 손익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.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당기 순익 감소는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(손해보험: -21.0%, 은행: -49.1%, 증권: -54.2%, 생명보험: -72.9%). 이는 보험종목 간 다각화가 회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, 실증분석 결과 실제로 보험 종목 간 다각화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.

본 분석은 일반손해보험,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종목을 영위하는 10개 원수보험회사의 FY2001~FY2008 실적을 대상으로 하였고,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다각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보험종목 별 원수보험료 비중을

이용한 허핀달지수를 산출하였다.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분석 기간 동안 ROE(자기자본/총자산)로 측정한 10개 손해보험회사의 평균 수익률은 10.3% 수준으로 나타났으며, 회사 간 수익률 격차 및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둘째, 분석 기간 동안 대상 보험회사들의 평균적인 허핀달지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FY2003 이후 꾸준히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.

셋째, 다각화 수준 및 추이는 회사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, 대체로 안정적인 다각화 수준을 유지한 회사가 수익률의 변동성도 낮게 나타났다.

넷째, 회사 특성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 종목 간 다각화가 ROE로 평가한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.

이러한 분석 결과는 손해보험회사가 적정 수준의 다각화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. 따라서 회사별로 자사에 적합한 최적 다각화 수준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.

※ 첨부 : 손해보험회사의 보증별 원수보험료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 분석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